

전염병 시대, 사람의 길

신석준 《신의한술TV》

어느새 전염병은 우리 곁에

역시 병病에 대해서는 장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전염병은 말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 코로나19감염증은 만만한 병이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비교해도 전염력만큼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만큼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2월 18일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31명이던 감염자는 불과 열흘

만인 2월 29일을 기준으로 3,000명을 넘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 또한 17명이나 됩니다. 어느새 코로나19감염증은 사람들의 대비를 비웃듯 우리 곁에 와 있었습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염병과 함께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전염병은 늘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달리하면서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참혹했던 기억을 이야기로 만들어 전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한 것 말고도 기록으로 남은 전염병 이야기는 적지 않습니다.

역사 속의 전염병

우리 역사에서 전염병에 대한 첫 기록은 기원전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백제 시조인 온조왕 때 기록입니다.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4년)

고구려도 안원왕 5년(535년) 겨울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34년 중국에서 북위(北魏)가 멸망한 다음, 많은 유랑민과 귀순자가 고구려로 들어오면서 전염병도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국사기』에 가장 많은 전염병 기록을 남긴 것은 신라입니다. 661년 초 신라에는 “군사와 말을 징발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병이 크

게 돌았습니다. 한 해 전인 660년 백제를 침공한 당나라군 13만과 신라군 5만에 이를 방어하던 백제군 5만이 뒤엉켜 벌였던 전쟁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전쟁과 전염병은 늘 붙어 다닙니다.

또한 신라 때는 선덕왕宣德王이 785년 1월에, 문성왕文聖王이 857년 9월에 “질진에 걸려” 죽었습니다. “질진疾疹”이란 전염병을 말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천연두나 홍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 때는 삼국시대보다 전염병 기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전염병이 돌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기록이 37회 정도 나옵니다. 신라 때도 임금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지만, 고려 때도 임금 세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경종(981년 7월), 예종(1122년 4월), 인종(1146년 2월)입니다. 예종 때는 임금뿐 아니라 왕족과 신하들까지 감염되어 함께 죽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예종이 죽자 송나라 휘종은 1123년 6월에 1,000명이 넘는 사신단을 고려에 파견합니다. 예종을 조문하고 인종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사신단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왔던 서긍徐兢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공족公族을 볼 수 없고, 별궁 10채 가운데 9채가 텅 비어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전염병 치료, 문병, 장례 과정 등에 참여했던 왕족과 고위 관료 들이 감염되어 상당수가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거나 피난을 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조시대에 임금만큼 의료 혜택을 잘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어느 시대나 돈깨나 있고 권력을 쥔 상류층도 최고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전염병에 걸려 죽을 정도니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참혹한 기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읽어 보겠

습니다.

올해 전염병이 크게 돌아 시체와 해골이 길에 가득하다.

(『고려사절요』, 예종 5년[1110년])

1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 썩과 우물이 모두 마르고 벼와 보리도 말라 버렸다. 아울러 전염병도 돌아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사람 고기[人肉] 파는 놈까지 생겼다. (『고려사절요』, 명종 3년[1173년])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더합니다.

조선 때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염병 기록이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 전염병 기록은 1천 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발생한 횟수로 계산해 보면 3년에 1번 전염병이 있었던 셈이니,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1천 명 넘는 사망자를 낸 전염병 기록도 최소한 36건입니다.

희생된 사람의 수도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아무리 많아도 2만 명 수준이던 전염병 사망자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급증합니다. 현종 12년(1671년) 헌납 윤경교의 상소에 따르면 “거의 100만 명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한 마을 사람이 모두 죽은 경우도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숙종 때는 254,600명, 영조 때는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인구를 적게는 1,000만, 많게는 1,600만 정도로 추정하니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기지 못했던 전염병

전염병은 평상시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전쟁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은 전쟁 자체로도 엄청난 희생을 불러왔지만 그때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엄청난 데 엄청난 격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말~1594년 초 전염병이 조선을 덮칩니다. 최전선에 있던 조선 수군 또한 이를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1594년 1월 21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전염병으로 죽은 군사 시체 274구를 묻어 주었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1594년 4월 20일 장계狀啓의 보고에 따르면, 전염병으로 죽은 군사가 1,904명, 감염된 군사는 3,759명입니다. 3월 10일 장계에 조선 수군 총수가 1만 7천 명이라고 했으니, 불과 한 달 사이에 30%가 넘는 인명이 피해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입은 피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뒤 당시 도원수 권율의 장계에 따르면 조선 수군은 거의 궤멸 상태였습니다.

큰 배와 작은 배가 도합 84척이고, 사군射軍과 격군格軍은 도합 4,109명인데, 병든 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선조실록』, 선조 28년[1595년] 2월 12일)

1년이 못 되어, 1만 3천 명이 넘는 군사가 싸움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순신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4월 10일에는 이순신이 아끼던 조방장 어영담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순신 본인도 전염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순신은 1594년 4월 26일 『난중일기』에 “병

제가 너무 무거워져 거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썼습니다.

이순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1592년~1597년 동안 입은 인명 피해는 사망 38명, 부상 189명이었습니다. 1598년 명나라 수군과 연합한 다음 사상자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동안 조선 수군이 전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군사는 최대 2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전염병은 30전 30승의 불패 장군 이순신도 이길 수 없었던 강적이었습니다.

선비라는 것들이 의리도 없다

정조가 죽기 1년 전인 1799년, 조선에 전염병이 돕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전국에서 12만 8천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의 주요 정파 지도자들이 열흘 사이에 모두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1월 7일, 노론 영수領袖 김종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 1월 10일에는 소론 세력가 서호수가, 1월 18일에는 남인 영수 채제공이 잇달아 죽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당 대표와 주요 야당 대표들이 전염병에 걸려 며칠 사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은 커다란 사건이었으니, 정치인들의 죽음 또한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파벌인 노론 두목 김종수가 죽었는데도 장례식 때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에 걸릴까 무서웠던 게지요. “정승 집 개가 죽은 데는 문상을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간다.” 괜히 생긴 말

이 아닙니다.

당시 임금이던 정조가 성질을 냅니다. 이즈음에 쓴 비밀 편지에서 정조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김종수가 죽어) 영구(靈柩)를 옮길 때 한 사람도 와서 보는 이가 없었다. 이른바 선비 무리라는 것들의 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도 모르게 팔뚝을 걷어붙이게 된다.” 아마도 정조는 평소 성리학 의리를 내세우며 무리를 지어 자신에게 대들던 선비들이 정작 전염병이 무서워 주요 정치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는 ‘못난 꼬라지’를 봐주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조는 채제공이 죽었을 때 정적인 심환지에게 편지를 보내 특별히 문상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채제공 집에는 조문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생전에 한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눈 사람에게 죽고 나서 조문 한 번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인정이 아니다.”

문종 vs. 안상수

요즘도 전염병이 돌면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몇 백 년 전이야 더 말할 나위 없지요.

옛날에 향덕(向德)이란 사람 어머니가 전염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향덕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이고 종기를 빨아내 어머니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경덕왕 때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야사나 정사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정성이야 더없이 가늠하지만, 그만큼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돌면 나라에서도 대책을 세우기 어려웠으니 일반 백성들이야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신 요법이 셀 수 없이 전해졌습니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5월 초닷새에 쪽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문 위에 두면 전염병을 막는다.’ ‘새벽닭이 울 때 사해신 이름을 세 번씩 외면 온갖 귀신과 질병을 물리친다.’ ‘붉은 팔 한 되를 담아 우물 안에 3일 동안 넣었다가, 27알씩 먹으면 열병이 낫는다.’ ‘환자가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행동을 조심하고 왼쪽으로 들어가라.’

아무리 읽어 봐도 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미신 처방들은 전염병을 치료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고 출처도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수백 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미신에 의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임금 가운데 재위 기간이 짧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문종 文宗은 오늘날 의사가 봐도 괜찮은 전염병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종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무엇보다 군사와 병법에 능했고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아까운 인물이지요. 문종은 1451년 9월, 나쁜 병을 치료하는 의견을 담은 『구악병의 救惡病議』를 직접 썼습니다.

문종은 사람끼리 접촉하면 전염병은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염병이 번지지 않게 하려면 환자들을 격리하고 음식과 의복과 약을 넉넉히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여제 厲祭나 수륙재 水陸齋처럼 귀신에게 비는 것은 허망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는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괜찮지 않습니까? 몇백 년 전에

이처럼 사리에 맞는 말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500년 넘게 시간이 흐른 2020년 2월 우리는 광장에서 대놓고 황당한 처방을 떠드는 제1야당 국회의원을 볼 수 있습니다.

우한 폐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통마늘을 7통을, 7컵의 물에 넣어서 7분 동안을 팔팔 끓여서 그 물을 하루 3번 커피처럼 드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생약 요법입니다. - 안상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안상수 씨를 문종에게 보내 교육 좀 받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의 문이 닫혀서 못 돌아온다면 마늘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안티푸라민이나 참기름이나

코로나19감염증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너무 많아서 다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SNS 타고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 등 모든 전염병을 예방하는 나만의 비법!!

안티푸라민 요법

1. 외출을 하기 전 손에 묻혀 코밀이나 혹은 코안에 조금 바른다.

2. 입술이나 주위에 얇게 바른다.
 3. 손바닥에 얇게 크림 바르듯 골고루 비벼 바른다.
- 참조) 모든 세균은 안티푸라민 냄새를 싫어합니다.

황당합니다. 다음 이야기와 비교해 보시죠.

참기름을 코안에 바르고, 누울 때에도 바른다. 미처 창졸간(倉卒間)이라 약이 없으면, 종이 심지를 말아서 콧구멍에 넣어 재채기를 하는 것이 좋다. (『세종실록』, 세종 16년[1434년] 6월 5일)

전염병이 돌 때, 감염자와 한자리에 있어도 감염되지 않는다며, 세종이 지방 수령들에게 내려보낸 처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닥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지요?

1434년 참기름 처방이나 2020년 안티푸라민 처방이나, 전염병에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나 그 어떤 세균도 안티푸라민 냄새를 싫어한다는 것은 굳이 과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알 만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 가운데는 사람 잡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 잡는 가짜 뉴스

조선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조 때 돌았던 가짜

뉴스는 생사람 잡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람 고기와 간, 쓸개를 창질瘡疾 치료약으로 쓰기 때문에 흉악한 무리들이 어린이를 사람 없는 곳으로 유괴한다. 비록 장성한 남녀라도 혼자 길을 가면 강제로 잡아 모두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냈다. 쓸개를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에 묶여 배가 갈린 사람이 산골짜기에 서로 바라볼 만큼 많았으므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수 없었다. (『선조실록』, 선조 9년[1576년] 6월 26일)

끔찍한 일입니다. 1576년 당시에는 평안도에서만 14,600명이 사망하는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법을 만들어 현상금을 걸고 체포”할 정도였습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만들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염병을 퍼뜨린 사람을 대상으로 혐오와 배제가 이어집니다. 끝내는 희생양을 찾아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광기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의 말속에 번뜩이는 광기가 보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있잖아. 거기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 … 중국이 지금 보니까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 발원지가 우리 지교회가 있는 곳이라니까 ...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 감사하지요.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신천지 예수교 부산 야고보 지파장)

야외에서는 전혀 전염이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 것인지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 말이 칼보다 많은 생사람을 잡기도 합니다. 정신 나간 종교 지도자의 한두 마디는 어떤 가짜 뉴스보다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염병이 사람을 잡는 시대에, 적어도 사람이 사람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까닭은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제가 기억하는 전염병들입니다. 저는 워낙 둔한 사람이라 전염병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70만 명이 감염되었다는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도 전염병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코로나19감염증 사태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5, 6년 주기로 반복되는 전염병 창궐이 어떤 불행한 시대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닐는지요.

갑자기 2천명 넘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적지 않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데도 가짜 뉴스는 넘쳐납니다. 이 와중에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 돈을 벌려는 사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살겠다는 사람 들을 보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감염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우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감염증 같은 전염병이 옛날엔 어땠는지 알아보자니 더 우울해지더군요.

그런데 뉴스 하나가 제 마음을 단번에 풀어 주었습니다. 대구 고산중학교 3학년 이찬형, 최형빈 두 사람이 코로나19감염증의 현황과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는 앱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구나 배너 광고로 얻은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사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니까 존경심마저 일더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어려운 국면, 모두가 벼랑 끝에 서게 될 때도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이성, 함께 살겠다는 따뜻한 감성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감염증이 지나간 다음 또 다른 전염병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냉정한 이성과 따뜻한 연대로 이번 사태를 함께 이겨 낸다면, 그것은 그대로 사람의 역사가 되고,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시대.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흘릴 땀방울이 아름답습니다. 전에 없던 전염병 사태에도 희망이 보이는 까닭입니다.

시대